

## 부룬디 원조 회의

1. 2.28(화) 부룬디 수도 Bujumbura에서 개최된 부룬디 원조회의(Conference des Partenaires du Burundi; Programme d'urgence de 2006)에는 EU, IMF, World Bank, AfDB, WFP, AU, UNDP, UN/AIDS, UNICEF, ONUB, IMF 등 개발원조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영국, 미국, 화란,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공여국 대표 60여명(총 참가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부룬디 동·북부 지역 가뭄으로 인한 기근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식량 원조 방안을 협의한바(별첨 communiqué final 참조), 3.2일자 당지 일간 The Guardian 지에 따르면 금번 회의를 계기로 현재까지 총 \$170million 상당의 지원이 합의되었다고 함.

2. 상기 참가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부룬디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금번 회의를 계기로 지원되는 금액과의 구분이 모호하나 현재까지 부룬디 외교부를 통해 비공식적

으로 확인한 국별, 국제기구별 대 부룬디 원조 규모는 아래와 같음.

국가/국제기구	원조 규모
EU	USD 59.5million
USA	USD 63.4million
World Bank	USD 40million
IFAD	USD 16million
Belgium	€ 31million
Nigeria	USD 0.2million
AfDB	USD 5million
IMF	USD 22million
Moroco	USD 0.1million
France	€ 4.5million
Japan	USD 8.8million
Netherlands	€ 2million
Egypt	USD 0.16million
Swiss	SFR 4million
Germany	€ 11million
Britain	£ 9million (USD 15.7million)

3. Pierre Nkurunziza 부룬디 대통령이 참석하고 Alice Nzomukunda 제2부통령(경제·사회 담당)이 주재한 상기 회의에서 부룬디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내전을 종식하고 '05.6-8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신정부를 구성하였지

만 오랜 내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최근 수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최근 200여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기아 위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부룬디가 당면한 긴급과제인 긴급식량원조, 교육, 보건, 선정(Good governance) 분야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본직은 상기 회의에서 KOICA 물자 지원사업 및 봉사단 파견, 우리정부의 ODA 증액계획을 소개하고 부룬디 정부가 요청하는 긴급 식량원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 3.1-2 UNICEF, WFP, UNHCR 대표도 부룬디를 방문, 현지 사정을 시찰하고 최대한 지원을 약속함.

4. 최근 부룬디의 내전종식 및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신정부 구성과정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바, 상기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규모, 아프리카에서도 최빈 개도국인 부룬디가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 재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기아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 부룬디 긴급 식량 원조를 위해 USD20만불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 주탄자니아 대사관]